

교회목표

신랄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진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한 영혼을 위한 복음의 잔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브라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7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금요집회)

율법의 폐지

율법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자민 만물과 우리의 양심을 세기신 법에서부터 구약 율법 곧 모세의 율법 그리고 신약의 산상수훈 등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 규범, 선, 악의 기준으로 주신 모든 법을 다 포함한다. 먼저 율법은 인간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여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죄의 대가인 형벌을 규정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인 바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준다. 즉, 인간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율법의 제한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인류를 향한 십자가는 율법을 폐지하여 주신 것이다(히 10:10-14; 롬 7:4).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다.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희생제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옛 제명은 폐하여졌다(히 7:12). “전 옛 제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고(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케 못할찌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히 7:18,19).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히 7:21; 시 110:4). 진정으로 모든 옛 제명은 폐하여진 것이다. 즉, 모든 희생 제물은 제사 직분에 의한 것이고 또한 제사 직분은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민 23:19; 말 3:6).

레위 자손의 제종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백성들은 그 아에서 율법을 받았겠지만 성경은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들 세를 약속하신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롬 10:4). 모세는 언급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외로 살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율법이 증명한 것이었다(롬 3:19,20).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본인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새 약속으로 강하게 내려지는 것이

9월 29일, 새 가족 초청 금요집회 (주관/교구위원회)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소식은 우리 교회의 주변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열방을 향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교회를 찾아 온 새 가족들이 올해만 벌써 2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돌아볼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창하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요 16:13). 이제 주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영혼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구위원회의 주관으로 새 가족 초청 집회를 9월 29일 금요일에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입적된 새 가족을 위한 복음의 잔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새 가족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되어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금요집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각 교구는 더욱더 새 가족들을 돌아보고 권면하여 한 영혼을 위한 복음의 잔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새 생명 전도주일 집회 (주관/제1교육위원회)

새 생명 전도집회가 다음주일(17일) 각 부서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아부부터 중등 3부 연령의 새 생명을 위한 복음의 잔치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새 생명 전도집회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영혼들, 부모님은 다니시지만 정착 본인은 나오지 않는 영혼들까지 모든 생명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자녀를 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부터 적극 권면하여 새 생명 전도 집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학교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복음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제 19:9).

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갈라 놓을 수가 없다. 율법이 있으므로 복음이 은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 것이다(히 7:22). 이 좋은 새 언약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약속인 것이다(히 10:5-7). 성만찬을 배부시는 예수님은 이 언약을 언급하신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피의 언약이다. 새 언약의 증보인 것이다. 새 언약의 증보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것이다(요 9:14,15). 이것은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와 같이 레위의 제사 직분이 폐하여진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전의 성소로 들어가는 그 옛 법도 소멸되었던 것이다. 십자가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첫 장막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모두에게 열리지 아니하였다. 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모두 끝이 났을 때 예루살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찢어졌다(히 9:8; 마 27:50,51).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무리들은 십자가 주위에서 일어난 이 모든 현상들을 목격하였다. 땅이 진동했다. 바위가 터졌다. 무덤들이 열렸다. 자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다.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그리스도으로 말미암아 열렸다. 새 언약의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갈 단락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는 큰 제사장이 계시오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소멸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히 10:19-22).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열렸던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 “너희와 모든 이슬라예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이 사람이 너희 앞에서 있다”라고 외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는 다른 것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고 외친다(행 4:11,12).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곧 제사장들의 나라가 된 것이다(벧전 2:9).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 1:6).

GOOD SOLDIER

(10)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11)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will be able to stand firm against the schemes of the devil. (12)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powers, against the world forces of this darknes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13) Therefore, take up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will be able to resist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everything, to stand firm. (Ephesians 6:10-13)

Jesus Christ is our Commander and Chief. He is the big boss. If you are a good soldier, you entrust your heart, mind, and soul to Him, in His strength,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v. 10). A good soldier needs protection. If you are a good soldier, you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will be able to stand firm against the schemes of the devil"(v. 11). The full armor of God includes the truth, righteousness, the gospel, faith, salvation, the Holy Spirit, and constant prayer. These weapons are necessary,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powers, against the world forces of this darknes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v. 12). What does it really take to be a good soldier?

First, the good soldier has to join the armed forces. If someone claims to be a soldier, but has not actually joined in service, then he or she is not a soldier. There are only two armies: the heavenly and the earthly. The devil heads up the earthly army and God leads the heavenly army. If you want to join God's army, you need Jesus as your Savior because only He can change your heart. God picks His soldiers in a strange way. He does not look at the outside of a person, but their inside heart. When Samuel looked over Jesse's sons, he thought Eliab was sure to be the next king, "But the Lord said to Samuel, "Do not look at his appearance or at the height of his stature, because I have rejected him; for God sees not as man sees, for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1 Sam. 16:7). In addition, God chooses foolish and weak people, not smart and strong people, to serve Him, "but God has chosen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and God has chosen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things which are strong"(1 Cor. 1:27). Jesus said,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that you would go and bear fruit, and that your fruit would remain, so that whatever you ask of the Father in My name He may give to you"(Jn. 15:16). How do you get accepted into God's army and become a good soldier? By humbly coming to Jesus, denying yourself, taking your cross, and following Him (Mt. 16:24).

A good soldier does not get caught up in the world's ways. Paul said, "Suffer hardship with me, as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No soldier in active service entangles himself in the affairs of everyday life, so that he may please the one who enlisted him as a soldier"(2 Tim. 2:3&4). The world is evil and a good soldier separates from it. God said, "Therefore, come out from their midst and be separate," says the Lord and do not touch what is unclean; and I will welcome you"(2 Cor. 6:17). If you want to be a faithful and trustworthy soldier, you must not get entangled with earthly things. 1 John 2:15&16 say,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A good soldier needs to be loyal. Matthew 6:24 say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 When you join God's army and He gives you orders, you must follow them. Soldiers do not challenge or disregard their Commander. Good soldiers listen and obey. I see too many Christians telling God "no" because of this or that. They think that because God is love they can enjoy earthly things and heavenly things. This thinking is wrong. Good soldiers must focus on one thing, Jesus Christ, not their own desires. If you want to be a good soldier, you need to be Christ-centered. Romans 12:1&2 say, "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Finally, a good soldier prepares to suffer for Jesus Christ. 1 John 3:13 says, "Do not be surprised, brethren, if the world hates you." You have to get ready to face the conflicts that come from the world hating you, "If the world hates you, you know that it has hated Me before it hated you. If you were of the world, the world would love its own; but because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I chose you out of the world, because of this the world hates you"(Jn. 15:18&19). The world's hate is vast and deep when it comes to Christians. Jesus said,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because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the world"(Jn. 17:14). Revelation 2:10 teaches us, "Do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so that you will be tested, and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ten days.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Amen.

My dear friends, if you want to be a good soldier, join God's army and stay away from the world's ways. Be loyal and empty yourself in preparation for the pains of battle. Please do not trust yourself, your physical body, knowledge, or wisdom. Just deny yourself, "For yet in a very little while, He who is coming will come, and will not delay. But My righteous one shall live by faith; and if he shrinks back, My soul has no pleasure in him"(Heb. 10:37&38). For that reason; you must "take up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will be able to resist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everything, to stand firm"(v. 13). Jesus has won the war, so that only the battles remain, and the good soldiers who fight these battles in faith will enter His Kingdom and live in perfect peace forever. Amen. 🕊

다움 주일 설교

좋은 군사

⁰⁰⁰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⁰⁰¹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⁰⁰²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⁰⁰³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10~13)



김성판 목사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대장 되십니다. 좋은 군사는 마음과 뜻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과 그분의 능력에 맡겨 드립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10절), 좋은 군사는 방어물이 필요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고 싶다면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과 간절한 기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12절). 그렇다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먼저, 좋은 군사는 군대에 합류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은 좋은 군사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군에서 복무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군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군대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군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은 천국의 군대를 지휘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에 합류하기를 원한다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군사들을 뽑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그는 엘리압이 틀림없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또한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한 자 대신 어리석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전 1:27).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요 15:16).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이 가능합니다(마 16:24).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

좋은 군사는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합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인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3,4). 세상은 약합니다. 따라서 좋은 군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고후 6:17).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군사가 되고 싶다면 세상적인 것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 일서 2:15,16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주님께만 충성하라

좋은 군사는 충성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24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합류하여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군사들은 상관의 말을 무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군사들은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서부터 이유를 대며 하나님께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고 싶다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로마서 12:1,2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좋은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것을 준비합니다. 요한일서 3:13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함으로 인해 생기기 될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8,19).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미움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요 17:14). 요한계시록 2:10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육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심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군대에 합류하고 세상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전투의 고통을 대비하며 자신을 버리십시오. 자기 자신이요 육체,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을 버리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히 10:37,38).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입니다(13절).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투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전투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좋은 군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 (벧전 1:13~23)

참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겼던 베드로는 외치고 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전부이며 소망이며 존재 의미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인가?

만유를 회복하시는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만유가 회복되는 날이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 3:20,21). 이 날에 모든 피조물은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거나 썩지 못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롬 8:21).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을 것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벧전 1:7,8).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인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때까지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일이다(히 9:28).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요일 3:2). 단지 믿을 뿐이다.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신다. "우리 생령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4).

영광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영광의 날이다(딤후 2:13). 썩어질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창조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날이다(벧후 3:12). 우리는 피조물로 인해 공포를 느끼는 연약한 피조물이다. 이처럼 연약하여 연약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전 1:7,8).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바랄 때 우리는 영광의 날에 동참할 수 있다(벧후 3:9).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다면 그 날은 영광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딤후 4:1).

성경에서 예언한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성경에서 예언한 날이다. 하나님은 다냐엘에게 그 날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단 7:13,14). 유다에게도 그 날에 대해서 예언하셨다(유 1:4).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날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마 25:31).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요 17:4,5). "그 때에 인자의 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날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마 16:27).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다(마 24:27).

외모로 판단하지는 예수님이 아니다. 각 사람의 행위로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다.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할 것이다. 그 행위는 바로 "믿음"이다.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지 살펴보자(벧전 1:19,21,22).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성경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전부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은총으로 가득할 것이다.

갈릴리 아부, 수가성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거라사 광인,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라. 이들 중 뛰어난 사람은 없었다. 인간의 노력은 없었다. 오히려 모든 면에 타락했으며 노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뿐이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걷자. 자신의 노력, 공로, 경험을 모두 버려라. "나를 깨뜨려 완전히 허수아게 가루되게 하소서. 가루된 나를 다시 반죽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 사용하시 주소서!"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부르셨고, 영광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축복에 있기를 원한다(마 1:1). 이를 위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히 12:2).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생존에 사랑 가운데 구원 불허 세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 날"(전 158장).

깨어져 가는 질그릇들, 장년 3부



신광철 (총로, 장년 3부장)

장년 3부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질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결심,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감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주님의 질그릇이기에 자신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마리아(요 12:3)처럼 겸손히 십자가를 붙드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교만한 모습을 깨뜨리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60대의 성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장년 3부는 "십자가를 생각하자"라는 표어 아래 매 주일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며 반별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5대 목표를 실천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원한에서 부부 전도집회와 초청 전도집회, 토요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주께로"라는 표어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교사를 중심으로 월 1회씩 자원 봉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기도원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청년이 되라"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대로 하루 일정이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자신을 묶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년 3부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경험과 신앙적인 경륜이 많은 분들에게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존경받는 위치에 앉으려 했었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서 이웃을 향해 가르치려고만 하였고 풍부한 신앙 경험으로 매우 겸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 집회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점점 더 연약해지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저희들은 더욱 믿음의 길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을 갈라야 우에서 부르신 것은 노인의 패였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80세 때였습니다. 이처럼 비록 몸이 불편하고 가진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성전에 이르러 교회와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속임으로 살려 주신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전하는 장년 3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장년 3부에 속한 주님의 질그릇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지며 그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1997년부터 생활하면서 그 다음 해인 1998년부터 충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불교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고국은 라마 불교를 믿습니다. 또한 계속된 정치적 불안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국의 동포들은 꿈도 없이 방황하며 인생의 목적을 잃고, 술과 담배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물질과 돈을 향하여 끌려가는 것이 현재의 고국과 한 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천교회에 다니고 있던 고국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녀지만 저의 마음에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언어가 서툴어 예배 시 설교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후 저는 예배를 통해 비로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히 찬송가 317장 “어서 돌아오소”를 통해서 주님의 강한 부르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를 정말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저를 다 아시고 이미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십자가 그 한없는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때부터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남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며,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미래가 결정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변치 않는 소망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고국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나눌 때문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가족과 헤어져 한국에 왔지만, 이곳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고객을 들을 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고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꼭 믿고 교회에 나가게 해 달라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질적인 풍성함보다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가 고국에 두고 온 가족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은 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향하였던 저의 인생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또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 또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충천교회 현지인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아 고국에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 떠나려 합니다. 모든 발걸음을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가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 항상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든지 기도하면서 고국의 친박한 현실과 약한 영과와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자랄라! (지난 8월 30일, A국 현지인 사역자로 파송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 팀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사 용하실까?’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선교지로 향했다. 주님은 우리 팀을 복음을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시골로 인도하셨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놓칠세라 많은 걸음을 걸으며 전도를 했다. 양치기, 소몰이 아저씨, 발일하는 아줌마 등등 정말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었고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전도지를 들고 있고 있었다.

그러나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넓은 농지에서 나뭇을 뜯고 있는 여러 명의 아주머니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우리가 탄 차량이 도로에 빠졌다. 비록 차로 움직일 순 없었지만 우리는 걸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수고에도 그분들은 “뭣?”을 설진다면서 전도지를 받지 않고 복음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되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라고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때 주님은 그들 중 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가 우리가 나누어 준 전도지를 들고 울고 있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며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광순(집사, 10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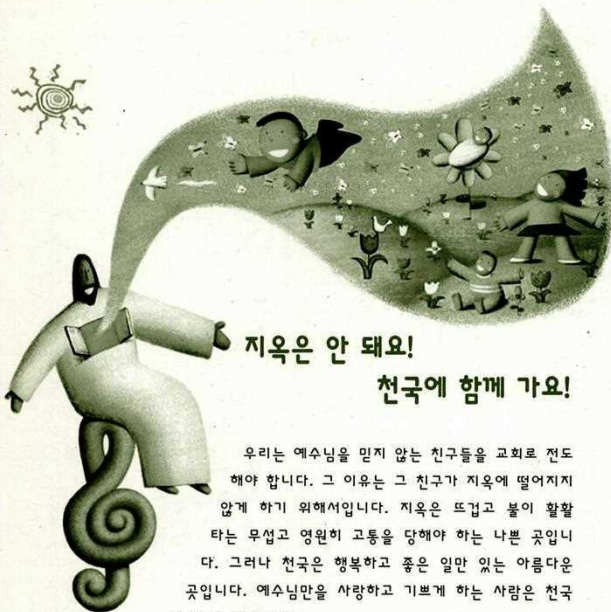
기 간	팀	팀 장
9월 14일(목) - 9월 22일(금)	4교구 3지역	채홍표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9월 4일(월) - 9월 12일(화)	1교구 8지역	김용조
9월 4일(월) - 9월 13일(수)	4교구 4지역	박원화
9월 5일(화) - 9월 14일(목)	10교구 3지역	김영록
9월 6일(수) - 9월 13일(수)	14교구 5지역	공석생
9월 6일(수) - 9월 14일(목)	7교구 4지역	장길남
9월 6일(수) - 9월 14일(목)	8교구 3지역	김해길
9월 6일(수) - 9월 14일(목)	17교구 3지역	이호일
9월 7일(목) - 9월 15일(금)	장년2부 1팀	권 철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8월 28일(월) - 9월 5일(화)	권사회	김영숙
8월 30일(수) - 9월 8일(금)	1교구 7지역	전삼진
8월 30일(수) - 9월 8일(금)	13교구 7지역	양승복



지옥은 안 돼요!

천국에 함께 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은 뜨겁고 불이 활활 타는 무섭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나쁜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친구들에게 알려서 함께 천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제 주변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로 나오라고 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유진(유년부)

회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함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종성함을 멸시하느뇨"(롬 2:4).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숨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를 인도하여 저로 회개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지하지 않으셨다면 전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 하는 죄인으로 살아야 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싫으셨을 텐데 왜 저에게 괴한 길을 주셨을까요? 저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지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저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인자함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제 마음이 자비를 베푸는데 인색하다면,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일 텐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는 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크신데, 그 사랑을 받은 제 사랑은 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작은 것일까요? 다른 영혼들도 주님과 화목케 되기를 바라며 제 자신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날마다 저의 자존심은 살아나고 매순간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해 제 자신의 계획과 감정을 주님의 뜻보다 우선시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내 모습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진실한 주님의 종이라고 제 자신을 속일 때가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는 행한 없는 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진정으로 알고 있지 않음을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며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싶은 혐오스러운 모습까지 다 용납하시며 제가 회개하고 난 후에도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끝까지 참으십니다. 언젠가는 십자가를 지고 제 자신을 부인하여 진정함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기대하시며 믿고 기다리십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의 종성함을 누리면서 전 그분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여 그분의 축기까지 한 그 사랑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제가 직접 느끼고 알아서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정민(집사, 6교구)

"이제 고3이다. 전부 뒤로 하고 공부에만 치중해야지."

작년 12월, 나의 목표이자 결심이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3은 공부만 해야 한

다는 대세를 따라 나도 다를 바 없이 3학년자를 맞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아니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오직 공부"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무언가가 나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였다. 고2때보다도 성적은 더 떨어졌고, 내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진심어린 조언도 내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럴수록 나는 당장 코앞에 닥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수많은 모의고사의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려야 했다.

어느새 3학년 1학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기말고사를 보았고, 형편없는 성적 앞에 나는 또 다시 깊은 좌절을 경험했다. 이 때 나는 솔직히 "하는 수 없이" 기도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더 이상은 내게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았다. 짧은 내 생각에 남아 있는 것은 단 한 분, 예수님이었다. 다른 때와 달리 나는 너무 간절했다. 나는 내 공부의 목표, 인생의 도착점이 필요했고 또한 내가 정말 힘을 다해 공부할 동기가 필요했다. 사실 너무도 이기적인 생각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기심으로 뭉쳐 있는 내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셨다. 은밀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혼자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은밀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흘

오직 기도, 오직 예수님

린 눈물로 예수님께 기도한 지 어언 3주일, 내 생각에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기적인 마음에 시작한 기도는 어느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되어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털어 놓지 못했던 마음속의 수많은 짐과 평예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마음 놓고 '외지'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또 체험했다.

이제 내 공부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졌다. 특히 고등부 학제 수련회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공부 때문에 초조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다. "공중 나는 새들도 그들의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하물며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세상의 작은 시험, 그 결과가 어떠한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와와나무에 소산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박진수(고등부)

교회 담방 아멘 남성중창단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육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2).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육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드려드리보라는 온전한 주님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아멘 남성중창단의 회원은 고백을 들어 보신다.

아멘 남성중창단은?

2005년 3월에 아멘 찬양대의 젊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비전공자를 위주로 해서 재능적인 면에서는 많은 기대를 갖지 않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연습하는 중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제 강을 음에 넘어 전교자 못지 않는 소리를 내는 단원들의 놀라운 실력 향상에 주님께서 쓰시자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김승희 집사, 지도)

전종승이 많이 있던 찬양대에서 중창단을 통해 노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되었습니다. 중창단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늘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김 경집사, 테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반주자로 섬기고 있는데 부친의 제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더 수고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신수정, 반주)

중창단을 통해 누리는 은혜는?

찬양을 통하여는 아버님의 영향으로 찬양대에서 봉사를 시

작했습니다. 찬양곡이 정해지면 피아노 앞에 앉아 튜닝이 연습을 하며 찬양의 가사 속에 빠져 들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장종국, 테너)

중창단을 시작하면서부터 길을 가다가 혹은 일상 속에서 모든 순간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서 찬양곡을 불러보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소리내어 연습을 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저 가운데 살았던 저 자신을 보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서로에게 어울릴 수 있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대원들의 마음을 보고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윤희경 집사, 테너)

찬양 듣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찬양대에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다. 그리고 아멘 남성중창단에도 들어오게 되었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막내라서 나름대로 다른 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니 찬양 속에서 나오는 마음들이 많이 생각나서 마음 많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신재식, 바리톤)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마음 속의 강박함을 느끼다가 찬양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의 나약함을 주님께 드러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는 제가 하는 것이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나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새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매단고 찬양할 때만 내게 새 생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진, 바리톤)

처음 중창단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없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이 점점 되어감을 조금씩 느끼면서 주님께 제가 이 사역을 하려하기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박희성 집사, 베이스)

저 같은 사람이 중창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중창단을 하면서 찬양에 대한 소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천국에 가면 늘 찬양만 한다는데...’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옵니다. (김성태, 베이스)

중창단 봉사를 시작하면서 예배 때 찬양을 할 때면 ‘내가 예배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하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 생활을 시작할지 얼마 안 돼서 항상 때만큼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에 설 때마다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경집사, 테너)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저는 유망하게 성령을 전하는 학생입니다. 비전공자들과 같이 봉사하면서 그들이 감동하고 낮아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서로 서로 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화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 모습들이는 매우 중창단과 다른 모습입니다. 늘 찬양을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오직 찬양이라는 한 가지사를 생각하여 제가 찬양을 하지만 온전한 찬양의 도가 되어 주님의 뜻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조경민, 테너)

단원 중 한 분께서는 늘 수요일 4개월째 함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 찬양시간과 평일과 나뉘어 대원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윤희경 집사, 테너)

모두들 좋은 남성들이기에 직장 생활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것에 많은 책임을 받습니다. 모두들 힘들어도 기도하며 섬기는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히 더 필요함을 느낍니다. 은혜가 주시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승희 집사, 지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더 없이 사모하는 아멘 남성중창단원들. 그러기에 유족하게 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회복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내고 주의 은혜 아래 기쁨이 기쁨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정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나니”

이 찬송의 가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한다. 바울이 고백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우면서도 확고한 사실이다. 주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 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박히셨으니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 찬송을 통해서 나는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항상 이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밤중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때에 같이하시라 언제나 나를 도와 주시며” 찬송의 가사 하나 하나가 내 마음에 다 닿는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최성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고 있다. 그때마다 나는 이 찬송을 들리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서게 해 달라고 주께 간구한다. “백야 눈물을 흘릴 때와 쓰러진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 때에 같이 하시라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라” 아무런 공로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시라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나니”. 아멘

(이홍기(가토교로, 할렐루야 찬양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256	김태홍	1 소양부		2271	양지연	6 청년1부	이연희(1)
2257	갈 라	19 외선부	백연희(1)	2272	심월배	6 청년1부	이연희(1)
2258	목 수	19 외선부	백연희(1)	2273	정영문	2 청년1부	
2259	홍승현	19 외선부	백연희(1)	2274	한 진	19 외선부	전종필(5)
2260	오 가	19 외선부	백연희(1)	2275	윤민호	8 청년1부	정현희(8)
2261	오 가	19 외선부	백연희(1)	2276	김지연	19 청년1부	최상조(7)
2262	오영숙	19 청년1부	김정현(19)	2277	함미연	19 청년1부	최상조(7)
2263	와우나	19 외선부		2278	아송숙	2 청년2부	
2264	심루와	19 외선부		2279	정진원	19 외선부	
2285	비리광자	19 외선부		2280	서병일	1 소양부	이연희(1)
2286	구미라	19 외선부		2281	이경자	2 청년2부	김선미(2)
2287	최영희	19 서양부	김희희(19)	2282	정유자	19 청년1부	이연희(1)
2288	박은은	19 바리톤부	정미연(19)	2283	이동현	19 대학부	지영희(18)
2269	이진원	1 청년2부	정미연(19)	2284	박순옥	12 청년2부	유옥희(11)
2270	강경희	1 청년2부	정미연(19)				

* 찬양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8호 새가족 등록표를 오시기 바랍니다.

